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483장) 주 예수여 은혜를(48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34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빌립보서 3:18-21	인 도 자
설 교	성도는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49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선교사역	
양육사역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10월 재정보고 및 교회행정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곧 교회의 미래입니다.
4. 우리교회는 일반재정의 50%를 선교 및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좋은 사용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110.00	
주일헌금:	$13.00	
특별헌금:	$610.00	**합 계: $733.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 믿음과 열정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2006년 11월 5일 제1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누가 제게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제게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십니까?" 묻는다면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합니다.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요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악하게 합니다. 추하게 합니다. 초라한 삶을 살게 합니다. 비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시시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종과 같아서 그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평생을 얽매어 살아갑니다.

물론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리고 사는 욕심은 그와 같이 의롭고 아름다운 욕심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욕심대로 살아봤자 별 볼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사느라고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삶은 흉내도 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들이 한 평생 오직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눅12: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종처럼 얽매여 그처럼 초라하고 옹졸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로지 땅만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머리를 깍고 세상과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용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도피를 통하여 우리는 잠간 동안의 착각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도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초월입니다. 뛰어넘음입니다. **빌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거듭남 삶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채 그것을 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함으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과 미련을 끊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빌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함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함을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부함으로부터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는 채 극복할 때 부함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도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붙잡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게 살면 비천함과 가난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 한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준이가 어렸을 때 상점에 가면 꼭 25센트짜리 동전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른들이 10불을 주어도, 20불을 주어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25센트를 주면 손에 꼭 쥐고 잘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25센트보다 1불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불보다 20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당장 자기가 쓸 수 있는 25센트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불의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25센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본 사람은 드디어 땅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자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벗어나 자유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인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땅에 더 얽매이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땅에 대한 더 많은 욕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미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의 것은 죽을 때 하늘로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만족도 주지 못하고 하늘로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연연하여 욕심 부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비굴하며 시시하게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도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그리고 제대로 아는 순간, 그분을 참으로 믿고 의지 하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낮아 질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축복입니다.